

교회소식

1.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이번 주 수요일예배(26일)는 그루터기(3,40대) 주관 헌신예배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루터기 지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1시 30분, 느헤미야 실).
4. 전반기 공동 성경읽기가 이번 주로 종결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범위: 신약 로마서 15-16, 고린도 전서, 디도서, 매일 3장).

공동 성경 읽기 일일 점검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롬 15-고전 1장	2-4장	5-7장	8-10장	11-13장	14-16장	딤후 1-3장

읽음 ○ 덜 읽음 △ 못 읽음 x

5. 성전 이전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다음 주 예배 후에 당회원, 안수 집사, 성전 이전 자문 위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1시 30분).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 A Y

교회사역일지

5월 2일(주일) 자녀 주일
 5월 9일(주일) 부모 주일
 5월 23일(주일) 성령 강림 주일
 5월 26일(수) 그루터기 주관 예배

기도순서

5월 30일 (주일) 손조훈 집사
 6월 2일 (수) 이기중 권사
 6월 6일 (주일) 이정인 집사
 6월 9일 (수) 이애란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1호 2021.05.23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사도행전 2:17-18 인도자

***찬송** 28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7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21:8-21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성령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태한 목사

찬송 438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 양승훈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차드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을 보내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4월 11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30년 장기 집권을 반대하며 시작된 반군의 공격에 맞서 전장을 방문했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시작된 차드의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몇 가지 사역 소식으로 기도 제목 나눕니다.

차드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와 마사코리 방문: 지난 3월 말에는 약 65명의 사역자들이 모여 제1회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GAP4FTT 지원으로 개최된 대회를 통해 차드의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하자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실천 사항으로 차드 50여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운동의 시작과 선교 주간을 정하여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은혜와 도전받은 목회자들이 현지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 11월에 2차 모임을 통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대회를 마치고 저희가 기도 중인 카넬왕국의 도시 중 하나인 마사코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조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데, 영육간 강건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저희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를 지방 정부에 하였고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선교 대회가 차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걸음이 되도록.
2. 새 사역지가 될 마사코리에 잘 정착하도록.

수요예배

찬 기 성 경 특 설	양 도 독 송 교	Worship Prayer Scripture Special Worship Sermon	수요 찬양단 정현열 집사 요한복음 9:1-5 그루터기
찬 주	송 도	Hymn The Lord's Prayer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태한 목사 330장 다같이

그루터기 헌신예배 오후 7시 30분

나눔란

2021년 5월 1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창세기 21:1-7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때마다 개입하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사랑이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이기에(롬 5:8) 놀라운 은혜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신실하심으로 표현됩니다: 본문 중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1-2).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고전 15:3-4)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요 1:1) 천지만물도 말씀으로 지어졌고 예수님도 성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요 1:14).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며(눅 1:37) 나 자신이나 사람과 환경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꿈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돌보심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리를 돌보셨습니다(1). 돌보심이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4)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이것을 믿을 때 어떤 고난도 축복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삼상 2:21) 광야의 모세를 돌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찾아가 돌보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요 21:19) 하나님의 돌보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실의에 빠져 고통 중에 있다면 이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돌보실 시간,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시 50:15) 말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찾아오심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2)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5)는 아브라함의 100세였습니다. 처음 약속하신지 25년이나 지난 후가 그 시기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분명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힘을 초월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삶에 이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위로가 있으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십니다(롬 8:28).

하나님의 은혜 외 사랑인 십자가로 우리에게도 끊어졌던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에 근거하여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3. 팬데믹에 맞는 선교 정책이 개발되어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